

# “마지막 칼 같았다”... KIA 고종욱, 이유있는 반등

시즌 타율 0.391... '통산 3할' 기회 잡고 주전 공백 메워 출산 앞두고 생김 '간절함'



KIA 타이거즈 베테랑 외야수 고종욱(37)의 절실한 마음이 팀을 전반기 막판 상승세로 이끌고 있다. 그의 간절한 스윙은 넓은 배팅존을 바탕으로 공을 거르지 않고 심지어 바운드 된 공이 와도 안타로 만들어 낸다. 1번타자로서 팀의 공격을 시작하기도 하며 중심타자로서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타를 휘두르기도 한다. 고종욱이 2군에서 올라온 '대체 자원'이 아닌 KIA의 가장 무서운 타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1번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한 고종욱은 1회말 롯데 선발 박세웅의 초구 시속 148km 직구를 받아쳐 비거리 135m의 대형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두 번째 타석이었던 2회 말에는 1사 3루 상황 희생플라이로 타점

을 올렸고 세 번째 타석에서도 땅볼로 출루하며 1타점을 올렸다. 네 번째 타석에서는 내야안타를 성공시키며 만루 기회를 만들어 빅이닝으로 연결시킨 뒤 교체됐다.

4일 1회말 2루타, 3회말 볼넷을 기록하며 2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고 3일 1회말 내야안타, 5회말 내야안타, 7회말은 1사 1·2루 상황 1타점 적시타이자 결승타를 터뜨렸다.

중심타자로 출전한 지난 1일에도 4회말 안타에 이어 7회말 2사 1루 상황 역전을 알리는 1타점 적시타로 결승타를 성공시키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지난달 6일 1군으로 콜업돼 올 시즌 타율 0.391(46타수 18안타) 2홈런 9타점 8득점이라는 괴물같은 기록을 쓰고있는 고종욱은 사실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었다. 통산 1080경기에서 타율 0.304로 몇 안되는 '통산 3할타자'다.

그렇지만 지난 2021년 SSG에서 방출된 뒤 테스트를 합격해 2022년 KIA에 겨우 입단했고 같은해 62경기에서 타율 0.283, 2023년에는 114경기에서 타율 0.296으로 준수한 타격감을 보여줬으나

주로 선발 출전이 아닌 경기 후반 대타로 기용됐다. 심지어 지난해 KIA가 압도적인 타격감을 선보이자 그는 갈 길을 잃고 28경기 출전에 그쳐야 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나이가 들면서 과거만큼의 장타를 생산하지 못 했고 수비에서도 아쉬운 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그에게 거는 기대와 기회가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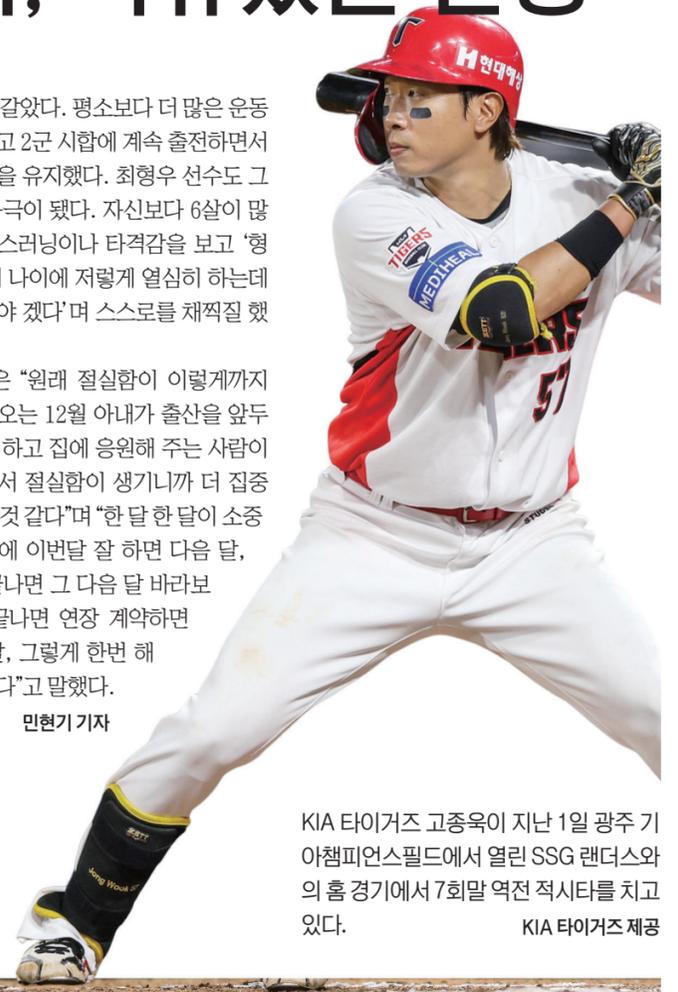
하지만 KIA의 올 시즌 주전급 선수들의 줄부상 위기가 그에게 곧 기회가 됐다. 기존 외야좌원이었던 나성범이 부상으로 경기에서 이탈했고 최원준, 이우성, 서건창이 타격 부진에 시달렸다. 박찬호, 위즈덤, 최형우, 김호령이 아무리 좋은 타격을 보여준다고 해도 야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한 번의 공격 기회에 세 번의 아웃카운트를 쓰는 동안 안타를 세개를 쳐도 1점도 못 낼 수 있어 KIA에서는 많은 경험을 가진 중요할 때마다 타격을 성공시켜줄 타자가 필요했다.

당초 올 시즌을 2군에서 시작해야 했던 그는 지난해 튼튼했던 외야진과 자신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키울 나이가 아닌 실력으로 보여줄 나이인데 더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함평에서 마

지막 칼을 갈았다. 평소보다 더 많은 운동을 가져갔고 2군 시합에 계속 출전하면서 경기 감각을 유지했다. 최형우 선수도 그에게 큰 자극이 됐다. 자신보다 6살이 많은데 베이스트리닝이나 타격감을 보고 '형우 형도 저 나이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해봐야겠다'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고종욱은 "원래 절실함이 이렇게까지 없었는데 오는 12월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집에 응원해 주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절실함이 생기니까 더 집중해서 하는 것 같다"며 "한 달 한 달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번달 잘 하면 다음 달, 다음 달 끝나면 그 다음 달 바라보고 시즌 끝나면 연장 계약하면 또 다음 달,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KIA 타이거즈 고종욱이 지난 1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 홈 경기에서 7회말 역전 적시타를 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전남도청 근대5종팀, 금빛 질주... 김영하 2관왕

한국실업연맹회장배 대회 남녀 4종 단체전 동반 우승



전남도청 근대5종팀이 전국대회에서 금빛 질주를 펼쳤다.

전남도청 근대5종팀은 지난 7일 전북 완주에서 막을 내린 '제12회 한국실업연맹회장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남녀 일반부 근대4종 단체전을 동반 석권한 데 이어 개인전과 계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가장 빛난 활약은 남자 일반부 근대4종 개인전에 출전한 김영하(사진)였다. 입단 1년 차인 그는 펜싱(22점)에서 9위에 그쳤지만 수영(303점)과 레이저런(641점)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종합점수 1164점으로 개인전 정상을 밟았다.

김영하는 박상구·이동기와 함께 남일부 근대4종단체전에서 총 3405점(수영 860점 2위·펜싱 680점 1위·레이저런 1865점 1위)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합작했다.

여일반부 근대4종에서도 김보경·공화영·주유정이 출전해 총 2860점(수영 773점 1위·펜싱 600점 1위·레이저런 1487점 1위)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김영하·박상구가 호흡을 맞춘 남일부 근대5종 릴레이에서는 총 1371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최동한 기자



한국의 주민규가 지난 7일 경기도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년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남부 1차전 중국과의 경기에서 전반 21분 팀 두번째 골을 넣은 뒤 동료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체고 윤준호·광주체중 강요한, 전국육상대회新 경신

높이뛰기·멀리뛰기 금메달

광주체육고 윤준호(3년)와 광주체육중 강요한(3년)이 '백제왕도 익산 2025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대회신기록과 함께 금빛 도약의 쾌거를 거뒀다.

광주체고 윤준호는 지난 7일 전북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남고부 높이뛰기 결승에서 2m05를 뛰어 전지민(충남체고·1m95)과 최은우(충남체고·1m90)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윤준호의 2m05 기록은 남고부 대회 신기록이다. 최은우가 앞서 1m95를 기록해 지난해 자신이 세운 1m90을 경신했고, 윤준호가 곧바로 최은우의 대회신기록을 갈아치웠다.

광주체중 강요한은 지난 6일 열린 남중부 멀리뛰기에서 6m49를 기록, 심우준(서곡중·6m29)과 김재현(당하중·6m16)을 제치고 우승했다. 최동한 기자

강요한 역시 대회 신기록을 작성했다. 이날 4위를 차지한 김민재(전남체중)가 6m16을 뛰어 지난해 이동관(전라중)이 세운 기존 기록 6m04를 경신했고, 김재현과 심우준이 김민재의 기록을 연달아 갈아 치웠다. 이어 강요한이 1차 시기에 6m49를 뛰어 다시 한 번 대회신기록이 경신했다.

광주체중 김아인(2년)은 7일 여중부 100m허들 결승에서 15초12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아인은 같은 학교 류지우(2년)·이세령(1년)·윤가은(3년)과 함께 여중부 4x100m계주에도 출전해 50초66의 대회 신기록으로 세종중(50초58·대회신기록)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체중 신윤아·안예지·김지은·손예원은 같은날 여중부 4x800m계주에서 10분18초로 금빛 질주를 펼쳤다. 최동한 기자

## 홍명보호, 동아시아컵 첫판서 중국 3-0 완파

이동경·주민규·김주성 연속골 11일 홍콩과 2차전

K리그 중심으로 꾸려진 홍명보호가 동아시아컵 첫 경기에서 중국을 상대로 3-0 완승을 거두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홍명보호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대표팀은 지난 7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남부조별리그 1차전에서 이동경(김천), 주민규(대전), 김주성(서울)의 연속골로 중국을 3-0으로 이겼다.

이번 대회는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기간이 아닌 일정으로 열려 유럽파 선수 차출이 어렵고, 각국 대표팀은 자국 리그 위주로 구성한다. 한국은 K리그와 J리그 중심의 대표팀을 꾸렸으며 이날은

K리거로만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한국은 스리백을 바탕으로 김주성·박진섭(전북)·박승욱(포항)이 최후방을 지켰고, 좌우 윙백은 이태석(포항)과 김문환(대전), 미드필드에는 김봉수(대전)와 김진규(전북)가 포진했다. 공격진은 주민규, 문선민(서울), 이동경으로 구성됐고, 골문은 조현우(울산)가 지켰다.

한국은 전반 8분, 김문환의 패스를 받은 이동경이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왼발 감아차기로 골망을 흔들며 기선을 제압했다. 이동경의 이번 골은 2021년 6월 스리랑카전 이후 4년 만에 나온 A매치 두 번째 골이며, 이번 대회 첫 골이기도 하다.

전반 21분에는 이태석의 크로스를 주민규가 머리로 마무리하며 추가골을 넣었다. 중국은 전반 막판 중거리슛으로 반격

을 시도했지만 득점에는 실패했다.

후반에도 한국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후반 11분 이동경의 코너킥을 박승욱이 헤더로 방향을 바꿨고, 이를 골키퍼가 쳐내자 김주성이 재차 밀어 넣으며 A매치 데뷔골을 기록했다.

홍 감독은 후반 중반부터 강상운(전북), 이호재(포항), 서민우, 모재현(이상 강원), 이승원(김천) 등을 차례로 투입하며 선수단 운영 폭을 넓혔다.

한국은 이날 승리로 중국전 A매치 6연승을 이어갔으며, 통산 전적에서도 24승 13무 2패로 격차를 벌렸다. 한국은 11일 홍콩, 15일 일본과 차례로 맞붙는다.

2019년 이후 6년 만에 통산 6번째 우승을 노리는 홍명보호의 도전은 산뜻하게 출발했다. 최동한 기자